

## VyTA · BOULANGERIE ITALIANA VyTA - 블랑제리 이탈리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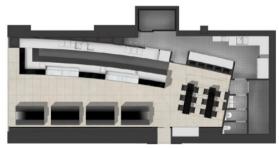
Design COLLI + GALLIANO ARCHITETTI Design Team arch. Marco Lombardini · Arch. Marco Capponi Client Retail food s.r.l. Location Termini Station Rome Italy Area 150m² Wall Oak Wood, Black Corian Photo Matteo Piazza

대자인 콜리 + 갈리아노 아키테티 대자인팀 마르코 롬바디니·마르코 카포니 건축주 리테일 푸드 s.r.l. 위치 이탈리아 로마 크기 150m² 벽 오크우드, 블랙 코리안 사진 마테오 피에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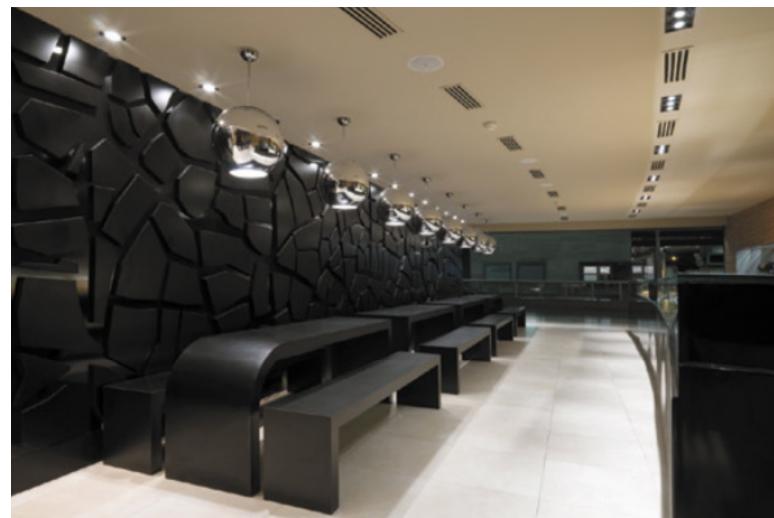
The project developed from one of the most simple and antique components on our dining table bread. The familiar colors of oak wood harmonize with the pale colors of the flooring and the ceiling, leaving space for monolithic furnishing accessories in black Corian that catalyze the attention through their symbolic purity. There is a large decorative wall consisting of a paste creation symbolizing the surface and the fragrance of a bread crust. This element has strong aesthetic and metaphoric connections and is used as the backdrop to a series of elongated tables and benches, where the consumption of a hasty meal is mixed with the ancient ritual of conviviality thanks to the intelligent use of lighting, enhanced by spherical suspension lamps in chrome-plated metal that invite and beckon while amplifying the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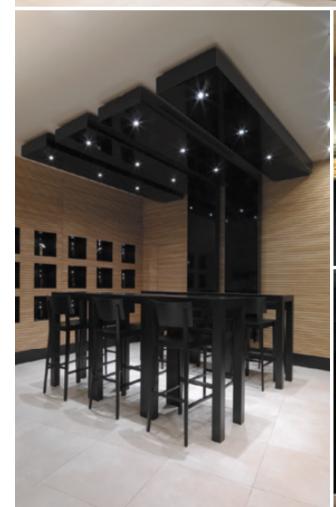
VyTA는 간단하면서도, 오랫동안 우리 식탁의 구성요소인 빵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로마의 철도역 내에 자리한 이곳은 열린 입구의 형태로 인해 외부로 투영되고, 출입구를 감싼 블랙 컬러로 외부와의 시각적 분리를 꾀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철도역 내에서 블랙이라는 진한 컬러는 브렌드의 아이덴 티티를 알리는 즉각적이고 강한 표현의 언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블랙은 내부를 아우르는 벽면으로 연결된다. 한쪽 벽면을 감싸고 있는 이 블랙컬러의 벽면은 빵 껍질의 표면과 향기를 상징하고 있다. 갈라진 톰과 불규칙한 조각의 이음으로 빵을 상징하는 은유적 성격의 장식물이자,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매혹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강한 블랙의 벽면과 오크의 부드러운 컬러, 밝은 실내의 조화는 빵의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묘사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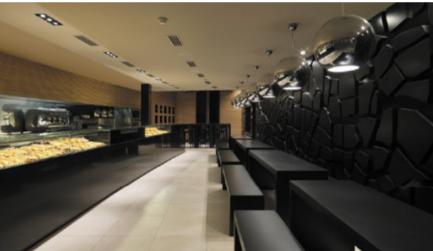
**취재** 명선아 기자 **사진** 마테오 피에짜



Floor Plan









170